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신안, 변화의 바람 분다



해상풍력 발전기

9개 발전사·5개 기업과 신안태양광산업협회 출범 협업 체계 구축 2030년까지 8.2GW 48조5000억 투자···12만개 고용창출 기대 부유식 해상풍력 10GW도 추진···관광 개발·주민 소득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익공유제'로 지방소멸위 기까지 극복한 신안군에 다시 혁신의 변화 바람 이 불고 있다. 빛의 태양광에너지산업을 성공시 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급부상한 신안군이 이번에는 바람의 에너지 고정식해상풍력과 부유 식해상풍력산업으로 신안의 개벽시대를 열어가 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체와부유식해 상풍력산업협회에 이어 지난 25일 9개 발전사와 5개 일반반회원사가 참여한 (사)신안태양광산업 협회를 출범하고 산업 활성화 협력 체계를 구축

군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8.2GW는 48조5000 억원이 투자되며 12만개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대규모사업으로 외국기업 크래도오프쇼어와 국 내기업 한화건설, SKENS, 남동발전 등 11개사 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부유식 해상풍력 잠재량 10GW를 추진 하고 있어 앞으로 신안군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사업은 신안 어업인들이 4월 지방자 치단체 최초로 수용하면서 성명서 발표와 해상풍 력 산업생태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어 신 안군어업인연합회가 제안해 민·관·사업자간 신

안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순풍을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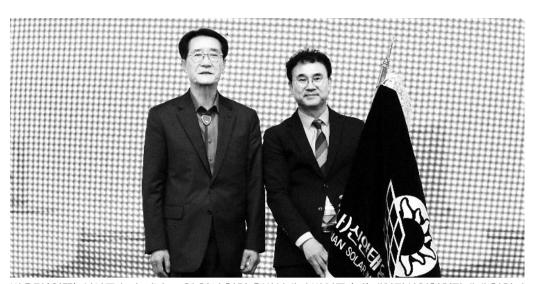
군은 1단계 4.1GW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 공해 2026년까지 조성하고, 2030년까지 8.2GW 전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 건축, 관리 및 보안, 물류 등의 분야에서 차례대로 채용 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군의

군은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해상풍력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이수 후 채용과 기자재 설치 및 관리, 현장 환경 감시 운영 등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확 보된 것이다.

군은 향후 8.2GW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에너 지 생산에서 발생한 이익배당금이 매년 3000억 원(부유식 제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해상풍력사업을 기반으로 관광활성화 인 프라를 구축하고 해안도로 확포장과 산책로, 트 레킹 코스개발, 공원조성, 주변지역 체험을 연계 해 요트 크루즈 관광과 낚시관광도 활성화할 계

또 바다 위 풍력으로 수많은 블레이드가 돌아 가는 장면과 함께 야간경관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주야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왼쪽) 신안군수가 지난 25일 열린 협회 출범식에서 박영문 (사)태양광산업협회장에게 협회기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 섬 육성사업'에 선정된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 과 13개 읍·면 연륙교 사업이 완료되면 신안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2박3일 또는 3박4일 체 류하면서 순회하는 코스별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보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

무엇보다도 현재 태양광발전산업으로 이익배 당금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면 신안 인구 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상풍력산 업이 속도를 내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귀촌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따

가운 눈총에도 신안군의 섬 자원과 특성을 활용 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화하여가고 있는 시대에 미래 먹거리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광산업에 확 신을 가졌던 박 군수의 혜안이 크게 작용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제 우 리 소득원도 변해가야 한다"며 "주어진 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고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해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신안 군이 더욱 성장하고 군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그 시대가 곧 다가 올 것 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의회, 진도개선발대회 예산 '멋대로 편성'

1억 3000만원 승인…군 '진도개 상품화 우려' 삭감 요구 반영 안돼

진도군의회가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진돗개)에 대한 상품화 논란을 부른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예산 1억3000만원 편성을 승인했다.

지난 31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린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우수 진도개 선발대 회' 예산 1억3000만원 증액을 의결했다.

앞서 진도군은 해당 대회가 진도개의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고려해 예산 전액 삭감을 군의

회에 요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를 받는 단체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광주일보 5월

군의회는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

23일자 15면〉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 있다. 진도개는 우리나라 국견(國犬)으로, 천연기념 물 53호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진도개 선발대회는 진도개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고, 살아있는 동물의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대회에는 해마다 400마리 넘는 진도개가 출전 하고 있다. 입상하는 40마리를 제외한 진도개들이

유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개 상품화를 지적하는 언 론 보도가 잇따르고 동물보호단체와 지역민의 민 원이 쇄도했다"며 "이를 고려해 우수 진도개 선발 대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삭 감의 의회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경 품으로 내걸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 다.

한 군의원은 "매년 하던 대회라 대회 예산을 증 액했다"고 설명했다.

진도에 사는 한 주민(68)은 "진도군의회가 지역 민 의견을 뭉개고 진도개 선발대회에 대해 독단적 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 예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돼야 하는데 일부 의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세계명견 334호,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목포 연동, 나눔으로 풍요로운 6월

주민자치위원회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물품 기탁



연동 행정복지센터가 풍요로운 나눔의 결실을 맺고 있다.

요식업체 진참치(대표 김안룡)는 최근 컵라면 100박스, 500m l 생수 30묶음과 30롤 화장지 10 묶음을 후원했다. 〈사진〉

또 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백희)에서 보양닭죽 재료 생닭 80마리와 한약재 및 과일 20 박스를 후원해 각각 취약계층 50세대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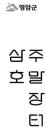
매월 정기후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목포복음교

회에서 김치 7박스, 목포재건교회에서 생닭 40마 리, 압해축산(대표 한기숙)에서 백미 2포, (주)보 해에서 후원금 60만원을 후원해 지정 세대 및 경 로당에 방문 전달하고 있다.

장미선 동장은 "생업유지도 어려운 시기에 지속 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과 주민 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연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주민·이주민 '화합의 장' 영암 '삼호주말장터' 개장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영암 '삼호주말장터'가 개 장한다.

3일 오후 2시 개장 식으로 문을 여는 삼 호주말장터는이주노 동자·결혼이주여성 등 아시아 외국인주 민이 많은 삼호읍의

지역 특성을 살린 행사로 마련된다.

장터는 판매부스, 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 등으 로 꾸며진다. 외국인주민들은 출신국과 민족의 다양한 음식

과 상품을 판매부스에 차려놓을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영암 농특산품 판매장과 플리마

켓을 열어 주말장터를 풍성하게 채울 전망이다. 체험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장터를 찾는 방문 객들을 위해 에어바운스가 설치되고, 비눗방울과 물총놀이 코너 등이 선보인다. 지역 문화예술공연

은 매주 오후 2시, 4시에 열린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위탁운영자 모집



10월 개관 예정인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체험 프로그램 및 유스호스텔'

〈진도군 제공〉

5일까지 접수…10월 개관

진도군이 10월 개관 예정인 '진도군 국민해양안 전관 체험 프로그램 및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착공해 280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2 층 연면적 4천463㎡ 규모로 지난 3월 완공됐다.

군은 국민해양안전관 위탁운영자를 모집한 뒤 시범운영, 교육기관 홍보활동 등을 거쳐 오는 10 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자 모집·접수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

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수조에서 실제로 슬라이드롤 통한 비상탈출, 선박 기울기 체험, 익수자 구조체 험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13개의 체험프로그 램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특히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계자는 "현재 건물 내 ·외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진행 중이며, 정식 개관 을 위해 철저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관광 목포' 브랜드 디자인 개발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의 정체성 과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목포관광브랜드 디자인 (BI)을 '목포랑〈사진〉'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응용디자인과 상품디자인을 개발했다.

목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및 다양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BI를 개발했다.

시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트렌드와 콘텐츠·역사 ·장소·사람 등 지역환경을 분석하고, 목포 만의 관 광BI에 대해 학계·관광업계 종사자·전문가·MZ세 대 등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목포랑', '아따 목포', '와! 목포', '목 포랑께', 'ok목포' 등 5개 디자인(안)을 도출했으 며 지난 1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자인(BI) 선호도 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1만4402명이 참여해 '목포랑' 32.2%, '목포랑께' 21.4%, '아따 목포' 21.2%, 'ok목포' 13%, '와! 목포' 11.6% 순으로 선호했 다. 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목포랑'을 BI로 확 정했다.

'목포랑'을 토대로 국문 및 영문 두 가지 버전을 개발했다.



Romantic Port MOKPO

국문 표기 '목포 랑'은 목포와 랑을 컬러로 구분하면서 감동과 낭만을 표현 하는 하트 모티브를 결합했다.

또 영문 표기 'Romantic Port MOKPO'는끝부분

이 돌출된 형태인 서체와 주황색 계열로 표현함으 로써 컬러의 대비감을 통해 눈에 띌 수 있게 했다.

시는 도시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와 이번에 제작된 관광브랜드 '목포랑'을 연계하면서 브랜드 론칭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물과 관광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관광거점도시 목포'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나 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랑'은 지역명을 쉽게 알 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시브랜드인 '낭만 항구 목포'와 연계해 관광거점도시 목포를 홍보하 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